

KIA엔 '원투스리 펀치'가 있다

“우승 하려면 푼푼한 선발 투수 3명은 있어야” 격언

한·미·일 프로야구 주름잡는 '투수 왕국' 전력 막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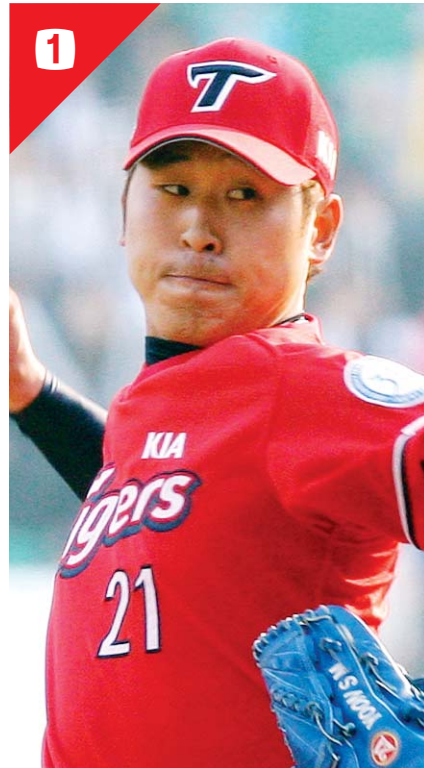
“우승을 하려면 푼푼한 선발 투수 3명은 있어야 한다”는 야구계 격언이 올해 한국과 미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통으로 들어맞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선두 삼성을 추격 중인 KIA 타이거즈에는 윤석민과 아킬리노 로페즈, 트레비스 블랙클러리는 유능한 선발 삼총사가 있다.
 이들은 다승과 평균자책점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며 다른 7개 구단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트리오는 유명하다.
 로이 할라데이와 콜 해멀스, 클리프 리는 6일 현재 30승을 합작하고 팀을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에 올려놓았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5억엔으로 최고 연봉을 받는 다르빗슈 유를 앞세운 퍼시픽리그의 니혼햄 파이터스가 강세를 보인다.
 다르빗슈와 다케다 마사루, 보비 케플리

이끄는 니혼햄의 팀 평균자책점은 무려 2.21로 일본 12개 구단 중 가장 좋다.
 <KIA 삼총사>= 막강한 불펜을 자랑하는 선두 삼성 라이온즈의 류중일 감독이 시샘 어린 눈빛을 보낼 정도로 윤석민과 로페즈, 트레비스의 선발 삼각 편대는 막강하다.
 야구는 '투수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두권이 혼전 양상임에도 워낙 강력한 선발을 갖춘 KIA의 손을 들어주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세 투수는 7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갖췄고 경기 운영 능력도 노련하다.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윤석민), 날카로운 싱커(로페즈), 면도날 슬라이더(트레비스) 등 주무기도 각각 달라 상대팀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석민과 로페즈는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고 트레비스도 7승을 올리며 한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져 3점 이내

■한·미·일 대표 '원 투스리 펀치' 성적표 (6일현재, *는 원수 투수)

나라(구단)	선수(승-패-방어율)
한국(KIA)	윤석민 (9-2-3.04) 로페즈 (9-3-3.04) * 트레비스 (7-4-3.08)
미국(필라델피아)	할라데이 (11-3-2.44) * 해멀스 (10-4-2.40) * 리 (9-6-2.92)
일본(니혼햄)	다르빗슈 (10-2-1.44) 케플 (8-2-2.96) * 다케다 (6-5-1.34)

로 막는 퀄리티스타트에서도 로페즈가 10회로 1위, 윤석민과 로페즈가 9회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다.
 <필라델피아 트리오는> 세 투수와 함께 로이 오스왈트까지 한 팀에서 못했을 때 미국 언론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발진이 완성됐다고 대서특필했다.
 오스왈트 등 부상으로 고전 중이나 할라데이와 해멀스, 리는 이빨값을 푼푼히 해내고 있다.
 2003년과 지난해 투수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을 수상한 할라데이는 올해 11승을 올리며 리그 다승 공동 선두를 질주 중이다. 또 완투(6회), 투구 이닝(136과 3분의 1 이



윤석민



로페즈



트레비스

닝), 삼진 대 볼넷의 비율(7.71)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러 생애 세 번째 사이영상을 향해 힘차게 진군 중이다.
 2008년 필라델피아의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해멀스도 10승을 올리고 맹활약 중이다.
 2008년 사이영상을 받은 리도 9승 중 4승을 완봉승으로 장식하고 역투를 펼치고 있다.
 <니혼햄 삼두마차> '슈퍼스타' 다르빗

슈의 광속투구는 올해도 변함이 없다.
 다르빗슈는 10승2패, 평균자책점 1.44라는 빼어난 성적을 올렸고 특히 12경기에서 5차레나 완투를 펼쳐 마운드의 지배자로 공인받았다. 2007년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와무라상을 받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방어왕왕, 2007년과 2009년에는 퍼시픽리그 최우수선수를 휩쓸었던 다르빗슈는 올해도 다관왕에 도전한다.
 다르빗슈는 탈삼진에서 119개로 1위, 다

승 1위, 평균자책점 3위에 올라 있다.
 6승5패라는 성적이 높고 보면 평범한 투수 같지만 1.34라는 평균자책점을 보면 깜짝 놀라는 투수가 바로 다케다다.
 유난히 '투구 타자' 현상이 맹위를 떨치면서 타선의 지원을 못 받았을 뿐 다케다는 잔물 투수로 니혼햄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병 케플도 8승을 따내며 지난해 달성한 12승을 쉽게 넘어설 태세다. /연합뉴스



육탄전 7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11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충남체육회와 웰컴코로사의 경기에서 충남체육회 박경석(오른쪽)이 웰컴코로사 김태원의 수비를 피해 슛을 날리고 있다. 충남체육회 29-28 승. /연합뉴스

한국, 사우디·카타르·오만과 '죽음의 조'

올림픽 축구 최종예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본부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 조추첨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총 6경기

를 치러 최종예선 진출권 확보에 도전한다. 공교롭게도 중동 세 팀과 최종예선을 치르게 된 한국은 장거리 이동과 낮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홍명보 감독이 같은 조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랐던 팀이어서 걸그룹기만 하다.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면 런던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2위를 차지한 세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조 2위 중 성적이 가장 좋은 한 팀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이 먼저 대결하고 여기에서 승리한 팀이 2위 중 최상위 팀과 격돌하는

방식이다.
 아시아지역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역시 0.5장의 자투리를 가진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지역의 예선 4위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펼쳐 마지막 런던행 티켓의 주인을 결정한다.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편성>
 ▲A조 =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B조 = 호주,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C조 = 일본, 바레인, 시리아, 말레이시아 /연합뉴스

지동원 전남 팬들에 고별인사

10일 광양전용구장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지동원이 전남 드래곤즈 팬들에게 고별 인사를 올린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게 된 전남 공격수 지동원이 10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수원과의 K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앞서 고별 행사를 갖는다. 지동원은 경기 시작 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입성 소감을 밝힌 뒤,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장 북문 앞 행사장에서 팬 사인회를 갖는다.

지동원은 또 홈팬들 앞에 직접 나서 그동안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을 통해 2010~2011시즌 지동원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이 소개된다.
 전남은 특별 유니폼 판매 행사도 준비했다. 전남은 이날 경기장 관 샴에서 지동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33벌을 선착순 판매한다. '33'은 지난해 K리그 데뷔 당시 지동원이 사용했던 등번호다.
 한편 지동원은 전남 유소년팀인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우선지명 선수로 2010년 프

로에 데뷔했다. 2010~2011시즌을 뛰면서 39경기에 출전해 11골 5도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나은행 FA컵에서는 4경기에서 5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상을 수상했다.
 광주 FC는 9일 오후 7시 강원 FC와 17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광주는 올 시즌 거둔 5승 중 4승을 홈에서 챙겼다.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최하위의 강원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승점 쌓기에 나선다.
 광주는 빛고를 공격 트리오 박기동·김동섭·주양파울로를 앞세워 골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인천전에서 주양파울로와 김동섭은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이며 각각 시즌 6호골과 5호골을 성공시켰다. 박기동의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만 몸놀림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1 광주시 어린이 전통종목 한마음 체육대회

9일 동강대학체육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2011 광주시 어린이 전통종목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는 오는 9일 동강대학체육관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어린이 전통종목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지역 내 40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 비석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 공 튀겨받기, 단체줄넘기, 단체줄라후프 등도 함께 펼쳐지면서 어린이 종합 운동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은행 전대운 동메달

남자 역도 기대주 전대운(19·광주은행)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전대운은 7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5kg급에서 용상 207kg에 성공해 바디비 아로요(에콰도르), 아스트루스 프레스니스(라트비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전대운은 인상에서는 152kg을 들어 14위에 그쳤고 합계에서도 359kg을 기록해 8위에 머물러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